



# 겨레과학의 발자취(26)



정동찬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사 연구실장

## 짚 다루기

### 짚 다루기

벼농사가 시작되고 가을이 되면 수확이 끝난 뒤 벼짚이 주변에 쌓이게 되어 벼짚의 재질과 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이용법이 생겨나, 생활 주변의 자잘한 도구들을 만들어 썼다.

이러한 짚다루기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벼농사가 시작된 것이 신석기시대로 밝혀져 신석기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경기도 김포와 일산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짚은 옛부터 천대(?)를 받아왔다. 삶의 허무를 짚에 빗대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는

나, 가망없는 것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같다”느니 하여 하잘 것 없는 것으로 표현되곤 했다. 그 이유는 딱 꼬집어 낼 수는 없겠으나 아마도 땀감으로 쓰일때 오래가지 못하고, 견고함이나 질긴 맛이 떨어지고, 가을이면 들가득히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짚이고, 또 초가집에 이엉을 해 없으면 겨우내내 따습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제공하지만 일년이 못가 썩어 버리기 때문에 이듬해 다시 새 이엉을 엮어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짚은 우리 선조들과는 너무나 밀접했다. 짚은 우리 선조들에겐 흡사 공기나 물과 같았다고 할 것이며,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짚은 지붕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곡식을 말리고 도리깨질을 할 때 쓰는 멍석, 씨뿌릴 때 쓰는 종다래끼(종대이, 종다리), 별통에 찌운 주저리, 김장 등주리, 씨앗을 보관했던 씨오쟁이, 암탉의 보금자리인 닭 등우리 등 큰 것에서 자잘한 것에 이르기까지 짚으로 숨쉴듯하게 꼬고 들어올려 만든 것들에서 선조들의 나무랄데 없는 솜씨에 탄복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짚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벼짚을 연상하기 쉬우나 사실은 모두 알곡의 이삭을 떨어낸 줄기를 통칭하여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벼짚이 가장 널리 쓰이고 또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흔하다는 잇점과, 밀이나 보리짚처럼 줄기가 뻗뻗하지 않고



부드러워 무엇이던지 만들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벗짚은 수명이 짧아 짚공예품은 다른 유물들처럼 오래된 것이 없고 대개가 30~40년 정도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양은 시기에 관계없이 거의 변화가 없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짚문화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에도 전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다. 다시 말해서 짚문화는 백성들의 순수성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수 천년 동안 민가에서 사용한 도구로써 우리 생활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값싸고 대량 생산된 플라스틱에 더 친근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짚공예품의 아름다움과 그 순수성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듯한 짚문화의 탁월한 아름다움에서 누구나 경탄해 마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짚과 좀더 가까워지도록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 짚신과 신들

신발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몸의 일부처럼 착용하고 다니는 것 가운데 하나다. 아무런 느낌없이 산소를 호흡하듯이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구두나 운동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는데, 이는 우리 선조들이 처음부터 신고 다니던 신발이 아니고 근래에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고유의 신발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과거 선조들이 이용했던 우리 신발은 가죽 신발, 짚신, 나막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죽신은 양반들이 주로 이용하였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신고 다닌 신은 짚신이었다.

이 신은 짚으로 엮어서 만드는데, 신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사용하였다. 신틀은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두툼한 각목에 여러 개의 구멍이 난 판자를 끼운다. 그런 후에 끈 새끼 한끝을 한쪽 기둥에 걸고, 다른 한끝을 허리에 감아 신뻘장으로 당겨 가며 신을 삼기도 하고 여러 개의 기둥이 박힌 두툼한 각목에 두 개의 나무를 끼워 바닥을 삼은 뒤 짚신을 삼는다. 짚신의 크기는 삼는 과정에서 조절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짚신은 요즘 가죽신에 비하여 오래 신을 수 없고 비오는 날 물이 스며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짚으로 엮어 만들었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여 발에 생길 수 있는 무좀과 같은 질병이 생기지 않으며, 짚 특유의 탄력성 때문에 발의 피로감을 덜어 주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건강 지압신발이라 하여 발바닥 부분에 뽕죽뽕죽 돌기를 만든 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자극이 너무 심하여 불편하지만 우리 짚신은 그 자극 정도가 가장 적당하여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한다.

### 명 석

가을에 여행을 하다 보면 너른 들이나 도로변에 곡식을 말리기 위해 곡식을 널어 논 광경은 풍요로움과 함께 시골의 정취를 더해준다.

추수한 곡식은 다음 추수 때까지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말려야 하는데, 명석은 곡식을 말리는데 주로 사용되는 곡식 깔개이다. 탈곡을 하고 난 뒤 곧바로 공간에 놓거나 가마니



에 담으면 자체 수분으로 인해 썩음으로 명석에 퍼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 방이에 쪼거나 갈무리한다.

명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짚은 잘 말리게 되면 습기를 머금거나 방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곡식을 말리는데 그만이다. 또한 엮은 짚사이로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곡식의 수분 증발을 쉽게 해주기도 한다.

명석은 가늘게 새끼를 꼬아 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등으로 엮어서 만드는데 주로 일이 적은 겨울철에 작업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새끼를 꼬아 만든 명석 대신에 화학비닐로 만든 검은 색 망을 사용한다. 이러한 명석의 변천은 농촌의 일손 부족과 더불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닐 망을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비닐 망과 새끼 명석과의 차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더운 여름날 비닐로 만든 방석을 사용했을 때와 왕골이나 짚으로 만든 방석을 사용했을 경우 바람의 통풍 차이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명석은 추수 때 곡식을 말리는데 사용된 것 외에 집안이나 동네의 경사나 애사 때 마당에 깔고 손님을 모시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방에 깔기도 하였다.

이렇듯 명석은 짚이 통풍이 잘되어 습기를 막거나 흡수하여 조절하는 통풍 원리를 잘 이용했던 우리 선조들의 과학 슬기의 결정체여서, 요즘 아무리 좋은 첨단 비닐이라도 습기는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명석만한 것이 없다.

비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비옷은 화학 물질인 비닐을 사용하여 만든 옷으로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되어 있지만, 이 옷을 입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체온으로 인하여 더워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요즘은 통풍이 잘되는 비옷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학섬유가 나타나기 전에는 비가 올 때 무엇을 입고 다녔을까?

우리 선조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롱이라는 어깨에 걸치는 비옷을 입고 외출을 하거나 일을 하였다. 도롱이는 짚이나 띠같은 풀로 촘촘히 엮어, 빗물이 미처 스며들어가지 못하고, 줄기를 따라 땅으로 흘러내리게 하였으며, 줄기 끝부분은 그대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들었다. 길이는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하였다.

이 도롱이는 물의 표면장력을 이용한 것으로 물은 자체의 표면적을 줄이려는 성질(凝集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촘촘히 엮어 있는 풀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작은 물방울이 맺히게 된다. 물방울이 맺히게 되면 응집 현상으로 주변의 작은 물방울을 흡수하여 커지게 되고 큰 물방울은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 중력에 의하여 풀을 따라 흘러내리게 되어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된다.

머리에는 어깨 너비 이상이 되는 삿갓을 씌워서 썩 도롱이와 함께 비옷의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의 삶은 자연과 어우러져 하나되는 모습이어서 만화나 풍경화와 같은 그림에서 자주 나타난다. **발특 9807**

## 도 롱 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린아이들이 울긋불긋한